

The Life Changing Saint 성인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삶

만약 성프란치스코가 오늘날 살아서 이곳에 있다면, 우리의 세상은 현재같지 않고 매우 달라진 모습일 것이다. 역사에 근거하고 그의 행적에 따라서볼때,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을 도울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는 모든 생태계와 동물의 수호 성인이다.

성인은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1181년에 태어났다. 그의 어린시절은 부유한 상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젊은시절, 그는 아주 버릇없는 응석받이가 되었다. 아주 대단한 부유층에 둘러싸여있는동안, 그는 거의 그의 젊은 시절을 사치스런 생활로 보냈다. 그러나 곧이어, 아시시와 페르지아와의 전쟁이 터졌다.

여기서 부터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심지어 그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는 프란치스코가 오늘날 이세상에 좋은 혜택의 도움을 보여줄수 있을것이라고 작은 세부사항들을 들어 열거할수 있다. 그가 엄청난 부에 쌓여 자라긴했지만, 성프란치스코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모아 가난에 자신의 인생을 보냈다.

단순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므로써 그는 놀랄만한 본보기를 만들어 줄수 있었다. 그는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성프란치스코는 전쟁이 끝난후 거의 1년간 감옥에서 보냈다.

전쟁의 경험이 없기때문에 그는 빨리 붙잡혔고 포로인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이곳 감옥안 에서 성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환시를 받기시작했다. 드디어 포로인 자신의 몸값이 지불 되어 그는 1203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사람이 되어 아시시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을때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다. 전쟁으로부터의 탈진감과,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위해 무엇이든지 찾으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시골의 어느날, 그가 말을 타고 가는중에 나병환자를 만났다.

나병환자들은 매우 더럽다고 생각되었고, 더구나 사람들의 눈을피해 다른 길로 다니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성프란치스코는 그를보는순간 동정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 나병환자를 껴안았다. 그일이 있는 직후, 그는 희열감을 맛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만약 성프란치스코가 매우 비슷한 질병에 시달리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가 같은 방식으로 해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동정심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도 주지않는 사랑을 주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세상에, 우리는 성프란치스코와 같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경우, 하느님을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살도록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를 정해 놓을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삶은 자연재해, 정치적전쟁이나 심지어 일상생활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나병환자와의 첫만남후에,

프란치스코는 그의 고향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그가 느끼고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 답을 찾기위해 매일기도하던중, 다행히 나병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볼수있는 기쁨을 발견했다. 어느날, 그가 기도하고 있던중에,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헌신하고 위대한 가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재건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그는 순종하여 아시시 주변에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곧 12 명의 추종자와 합류했다. 현세대에서, 성프란치스코는 열정을 다하고 온세상의 모든이를 돕기위해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기위해서 어려운 시도를 했을 것이다. 그가 바다를 가로질러 비행을 했었어야 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돈을얻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위해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응답했을것이다. 끝으로, 그 교회건축을 위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자금마련이 필요했다.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허가도 없이 아버지의 소유물 을 팔았다. 성프란치스코가 주교에게 가서 돈을건내 주자 그가 즉각적으로 그에게 말하길 그것을 되돌려주라고 했다. 그가 한 일에대한 슬픔때문에, 그는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위해 아시시를 떠났다. 오늘날 현세대에, 성프란치스코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울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하지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면, 그가 했던 바로 그같은 방법대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프란치스코의 생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근거로해서 볼때, 그가 오늘날 현세상에 있다면 단순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하고 병든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줄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해야하는지 도와줄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나 작은문제등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